

# Novartis, 타이에 암치료제 무상제공

## 타이 이마니팁 특허파기 조건으로 ... 가격 낮추면 강제면허 발급 중단

스위스 제약기업 Novartis는 타이 정부가 자사 약품에 대한 특허 파기를 중단하면 암치료 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콜 나 송클라 타이 보건장관은 방콕에서 열린 강제면허(Compulsory Licence) 관련 세미나에서 “Novartis가 자사 암치료제인 이마니팁(상품명 글리벡)에 대해 타이가 특허 파기를 중단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 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으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마니팁은 환자당 한달 사용량이 10만바트(2950달러)에 달한다.

몽콜 장관은 강제면허 발급을 추진 중인 다른 2개 제약기업도 특허파기 중단을 조건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타이 보건부는 9월 Novartis, Sanofi-Aventis, Roche의 암치료제 4개 약품에 대한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특허를 파기하고 강제면허를 발급하겠다고 위협했었다.

강제면허 발급 대상 암치료제는 Novartis의 이마니팁과 유방암 치료제인 레트로졸(상품명 페마라), Sanofi-Aventis의 폐암 치료제인 도세탁셀(상품명 탁소티어), Roche의 폐암 및 췌장암 치료제인 엘로티닙(상품명 타세바) 등이다.

몽콜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른 강제면허 발급은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해왔다.

WTO는 2001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특허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면허 발급 규정을 신설했다.

타이 보건부는 WTO 규정을 끌어들이며 2006년 말과 2007년 초에 Abbott의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Sanofi-Aventis의 심장질환 치료제 플라빅스, Merck의 에이즈 치료제인 에파비렌스에 대해 일방적인 특허파기를 선언하고 강제면허를 발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22>